오륙도 칼럼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명예부산시민

11월 11일, 우리를 대신해 영웅들에게 경의를

오는 11월 19일은 제2차 후크고지전투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의 경보병 67명으로 구성된 우리 중대는 영국 블랙워치 1대대에 배속돼 'P중대'로 임명되었다. 후크고지에서의 반격과 방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다. 우리는 기관총과 저격수, 박격포,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시체 위를 걸었다. 언덕과 경사면 곳곳에는 영국군과 캐나다군, 한국군, 중국군 병사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우리 중대는 잠도 자지 않고 뜬눈으로 늘 극도의 긴장 속에서 3일 밤과 3일 낮 동안 후크고지를 사수했다. 3명으로 구성된 야간순찰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순찰대가 적과 마주치자 적들이 포탄을 퍼부었다. 우리가 적을 향해 총을 발포하면, 어둠 속 광야에 대고 양쪽은 서로 총질을 해대기도 했다.

이런 전투의 기억은 수십 년 간 내 머릿속에 머물렀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날의 악몽은 남아 있다. 내가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몇 년간 툭하면 눈물을 흘렸고 울음이 나오면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쓰러진 전우들을 떠올리곤 했다. 내가 전우들과 함께 산비탈에서 얼어 죽은 모습을 상상했고 그러면 어김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캐나다 군대에서 3년을 복무한 뒤 19세에 제대했다. 19세 나이는 캐나다에서 맥주홀이나 술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였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는 교과서를 읽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단어들이 페이지에서 튕겨 나왔고 한 페이지를 채 다 읽기도 전에 나는 정신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읽고 또 읽어야 했었고 계속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7~8쪽을 읽는데 두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후크고지 전투는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올해 88세이고 지팡이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다. 이마저도 짧은 거리만 걸을 수 있다. 걷는 게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한국에서 겪었던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해도 "한국으로 돌아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전우들과 만나세요"라는 국가보훈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초청 받게 된다면 기꺼이 한국으로 갈 것이다. 유엔기념공원이 먼저 떠난 전우들에게 잘 보존된 안식처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다. 총에 맞은 적들은 언덕에 묻어주고는 정작 여러 진지에 널린 우리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공포감과 죄책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어떤 때에는 수습할 시신이 남아있지 않거나 시신이 흙에 뒤섞여 붙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유엔기념공원이 막 조성된 1951년, 미군 병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인 소녀가 묘역에 꽃을 놓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한 전우들을 품고 있는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있다. 바라건대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부산은 70여년 전 우리 군함이 도착했을 때의 항구도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초라한 환경과 궁핍한 사람들, 녹슬고 엉망인 항구 등 당시는 모든 것이 우울한 광경이었다. 2년 전 나를 명예시민으로 받아 준 부산에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다시 부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지난 20년간 매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대원 12명이 잠든 묘소를 참배할 것이다

만일 내가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 11월 11일 아침 11시 사이렌이 울리면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해주었으면 한다.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378명의 캐나다 전몰용사 중 한명은 한국전쟁에서 처음 전사한 캐나다 군인이다. 그가 숨질 때 고작 17살이었다. 그는 나이를 속이고 사촌의 이름으로 참전했다. 그의 묘역에 있는 동판에는 두 개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다. 그는 우리 부대의 자랑스러운 전우였다.

11월 11일 오전 11시는 캐나다 시간으로는 10일 밤9시가 된다. 이때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모여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을 가진다. 그들은 올해도 '부산을 향해(Turn Toward Busan)' 한국인들이 기리고 잘 돌봐주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 후크고지 전투 : 임진강 북단에 있는 해발 200m의 능선고지를 두고 미군과 영연방군이 중공군과 벌인 대규모 전투를 말한다. 지형이 '갈고리'를 닮아 영어로 '후크(hook)' 고지로 명명됐다. 1952년 10월부터 1953년 7월 휴전 직전까지 총 4차례의 전투를 벌였다.

암·코로나보다 치명적 노인성 폐렴 '폐렴구균' 백신접종으로 예방하세요

만65세 이상 평생 1회 접종

국내 노인 사망 원인 1위는 다름 아닌 폐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생하는 노인성 폐렴은 폐암보다 치명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폐렴의 주요 원인인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예방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종 대상(※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대 상	장소	접종명	접종 횟수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7.12.31. 이전 출생자)	전국 위탁의료기관	폐렴구균 23가다당질 백신 1회 무료접종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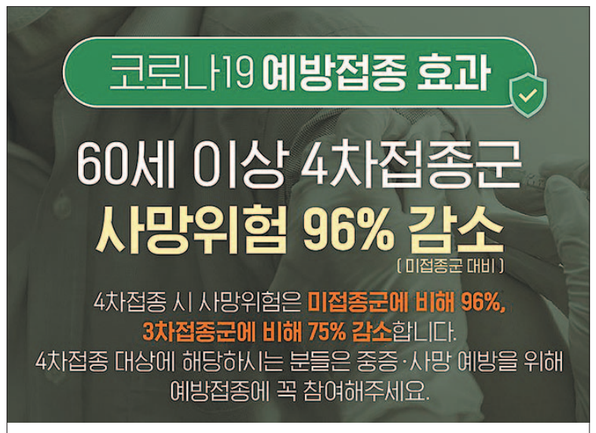
○ 문의사항 : 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607-6426~6427)

9월 임산부·영유아 교실 참여자 모집

	날짜	시간	내용	모집대상
맘플렉스 산모교실	9/15(목)	14 : 00~15 : 30	태교법 및 임신부의 모든 것 (테이핑요법, 태교법 등)	20주 이상 임산부
	9/22(목)		신생아 관리법(목욕 실기)	
	9/29(목)		출산가방싸기, 산후 몸조리 꿀팁	

	날짜	시간	내용	모집대상
라온교실 (영아건강교실)	9/15(목)	10 : 00~11 : 30	스킨십의 중요성 및 키성장 쑥쑥마사지, 베이비요가	3~6개월 영아 및 보호자
	9/22(목)		전신마사지 및 한 살 전 금기음식 교육	

▶교육 시작 2주 전부터 접수 신청(선착순)
▶전 회차 참여 완료 시 소정의 상품(방수요 등) 제공
▶zoom(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9, 6499)로 전화로 신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검색 후 예약
- 남구 콜센터 607-3260~3

산따라 물따라

9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	산행장소	연락처
원뿌리산악회	9월18일(일)	포항 내원사	010-4564-7769
우암산악회	9월25일(일)	고성 무이산	010-6578-0488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독자 투고

행방불명된 우편물의 '불편한 진실'

얼마 전에 기획축제물을 우편으로 대대적 우송한 일이 있었다. 등기로 보냈더니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되돌아온 우편물이 있었다. 주소가 틀렸나 해서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수취인은 대형 아파트의 우편번호와 주소가 정확하고, 코로나의 여파로 휴가도 가지 않았으며, 시쳇말로 '집콕'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보통우편으로 보냈다. 문인들에게 보내는 우편물이어서 일일이 전화로 주소 확인 후 보통우편으로 60여 통을 보냈다. 그러나 2주일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였다.

보통우편은 못 받아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 대체 10년 동안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고, 이미 우편물이 갈 것이라는 통보도 받아서 집을 비우지 않았는데 왜 수취인은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까?

모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라 수취인불명도 아니다. 이쯤 되니 의혹이 앞선다. 무덥다고, 귀찮다고, 이 법을 악용하지나 않는지. 선량하고 책임감이 있는 우체국 직원을 의심해서 송구하지만 그럼 많은 우편물이 하늘로 날아갔단 말인가, 땅으로 꺼졌단 말인가?

우편물 분실인지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비단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9년째 나는 이맘때마다 우편물 운송을 한 후 누누이 느끼는 불편함과 손실감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관계로 심지어 나는 우체국 직원이 우표를 바로 붙이는지 확인하고서야 우체국을 나서게 된다.

남구에 살고 있는 친정오빠가 사비를 들여 고향에서 문화예술로 환원적 나눔을 하고 있다. 나는 문화예술제를 담당하는 추진위원장으로서 9년째 매해 느끼게 되는 우편물 행방불명은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다.

팜플렛과 시화집이 들어가는 큰 봉투라 부칠 때마다 번번이 번거롭고 귀찮지만 묵묵히 9년째 하는 봉사이다. 분명 우편물을 보낸 명단에도 적혀있고 손수 주소를 적은 기억도 뚜렷한데 '못 받았으니 송구하고 염치없지만 다시 좀 부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온 문자메시지를 볼 때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 내 마음도 염장이 된다. 우편물 손실에 대한 범국민적 불편함은 정부차원에서 보통우편도 왜 전달되지 않은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적우편물의 전달법 개정'을 촉구하는 마음이 크다.

주순보 시인

2022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남편을 잃고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 한글교실에 오고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 하단다 너가 그랬지 '엄마 잘했다 바람도 쏘이고 돈 아끼지 말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어울려 놀아'라고 격려도 해주었지. 나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딸, 부모라고 배운 게 없고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맛있는 음식도 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부족한 부모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평생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떳떳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글을 배우니 내 마음이 기쁘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넘 행복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 처음에는 오는 날짜도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기다려진단다 딸아 사랑해 !

정명태(7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아들 박동성에게

나이 팔십 넘어서 글 배우고 구십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처음 편지를 쓴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속 안 썩이고 자라서 고맙다. 10원 한 장 안 도와줘도 알아서 잘 살아주니 부모 공은 하나도 없고 다 너의 공이다. 나도 너 걱정 안하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재미나게 살게. 내 걱정 말고 오순도순 잘 살아다오. 사랑한다.

이금선(8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부산대첩과 부산시민의 날

영화 '한산'이 인기다. 1,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량'의 후속작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주목받았던 영화다. 전작 '명량'의 이순신이 수많은 외압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었다면, '한산'의 이순신은 내면의 강인함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승리로 이끄는 지략가다. 한 명의 감독이 조명한 인물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순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지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 이순신 연구자만 5,000명이라는 말이 있다. 이순신의 매력에 빠져 이순신의 행적을 좇고 흔적을 찾아 연구하는 분들의 숫자다. 부산대첩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인 김종대 전 재판관이 대표적이다. 올해 '이순신, 하나가 되어 죽을힘을 다했습니다'를 출간한 김 전 재판관은 평생 이순신 연구에 매진해 그의 정신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꿈에 이순신을 만날 정도로 이순신과 깊이 교감하고 있다고 한다.

1592년 임진년, 왜군은 부산진성을 시작으로 다대포성, 동래성을 차례로 깨부수고 20일 만에 한양을 접수했다.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던 조선은 금방이라도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전라도 곡창지대를 점령하지 못한 왜군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만났다. 바로 이순신이었다.

이순신은 임진년 음력 5월 4일에 1차 출정으로 옥포 합포 적진포를, 2차 출정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를, 3차 출정에서 한산도와 안골포를, 그리고 4차 출정으로 장림포, 화준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를 깨고, 드디어 부산포에 도착했다. 왜군의 본거지였던 부산 앞바다를 공격한 부산포해전.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왜군의 전함 120여 대를 침몰시켰다. 조선 수군의 피해가 7명 사망, 25명 부상이었던 데 반해 왜군은 4000여명 사망, 1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로 엄청난 승리였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장수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 싸움보다 더 큰 것이 없었다'라고 밝힐 정도였다.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큰 승리라는 점에서 '부산대첩'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매년 10월 5일은 '부산 시민의 날'이다. 1980년 제정 당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부산대첩이 있었던 음력 9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5일로 결정되었다. 부산 시민들이 정한 날인데, 역설적이게도 거의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부산 시민들이 부산대첩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의롭고도 인간적인 면모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동화 '오만데 삼총사의 대모험2'에 담았다. 1편에서 남구의 여러 지역으로 시공간 모험을 떠났던 오만데 삼총사가 2편에서는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쳤던 정발 장군, 윤흥신 장군, 송상현 부사를 만난 뒤, 부산대첩까지 경험하는 이야기다. 부디 독자들에게 임진년 영웅들의 의(義)가 가 닿기를 바란다.

동화작가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유료광고 접수 4072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